

# 2000년, 석유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해



Tatsuo MASUDA

〈 Director, Office of Oil Market & Emergency Preparedness(OME), IEA 〉

## 1. 석유시장의 전개(97년말 ~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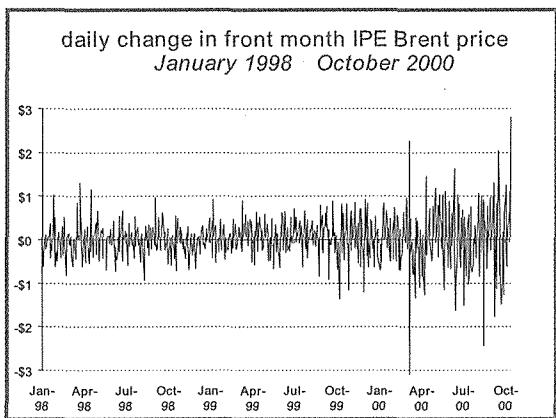
지난 3년간, 유가는 79년과 81년의 오일쇼크 이후 가장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이기간 동안 유가 추이는 초반 12개월간 60%까지 급락한 반면 그 이후 기간동안 300%까지 급등하기도 하였다. OPEC의 결속력 회복은 최근의 유가급등세를 촉진시켰다. 70년 석유국제거래의 80%를 상회하던 OPEC의 비중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90년말에는 55%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98년 4월 멕시코, 노르웨이, 오만과 같은 비OPEC 산유국들이 OPEC에 동조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이들 비OPEC 산유국들의 추가 참여는 석유 국제거래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런 거대한 비중이 생산억제와 같은 수단으로 조정되었을 때 이들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결과 첫째, 58~59일분까지 증가했던 OECD국가의 비축분은 52~53일분까지 기록적으로 급감했다. 둘째, 유가는 OPEC의 목표였던 배럴당 \$22~\$28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치솟았다.

셋째, OPEC의 공급정책은 시장의 불안을 증가시켜 가격변동폭의 확대를 가져왔다. 넷째, 최근 유가의 상승은 소비국들(유럽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음)에서 석유제품 세제에 대한 조세저항을 불러옴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다섯째, OPEC은 전략적 의도대로 시장 관리에서 자신들의 능력부재를 인정하면서, 최근 현 고유가 추세는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중의 하나는 유가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 International Petroleum Exchange)에서 거래된 브렌트유가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다.

## 2. 2가지 변동요인

나는 성급한 결론일지는 몰라도 2가지 변동요인이 현 고유가 현상을 잘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OECD국가의 비축분은 1999년 중반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0년 3/4분기말에는 약 25



역배럴이 되었다. 이 물량은 상당히 많은 양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를 “선 수요일수(days of forward demand)”로 환산한다면 52일분 밖에 되지 않는다. 석유의 공급과 정은 상당 기간 걸리는 동시에 복잡하하기도 해 최종 수요자의 원만한 공정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고 수준이 요구된다. 최근의 산업 비축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업계가 널리 도입하고 있는 “just-in-time” 재고 전략의 효과를 고려한다 하여도 아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비축분은 대략 54~56일분 정도가 적합하다.

### OECD비축일수 추이 (선 수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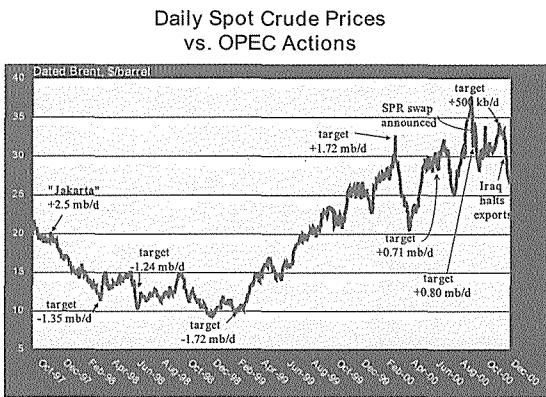
(단위:일)

1997				1998				1999				2000			
1Q	2Q	3Q	4Q												
57	56	55	56	58	59	58	56	58	55	52	53	53	52	52	52

또 하나의 변동요인은 OPEC국가의 예비 생산능력이다. 보통 비OPEC 산유국들은 생산능력만큼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 생산의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은 시장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예비생산능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세계시장에 그들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큰 규모의

예비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OPEC의 거대한 예비 생산능력은 세계 석유수요와 비OPEC 국가의 공급간의 격차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했다.

그러나, OPEC의 예비생산능력은 97년과 98년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하였고 98년과 99년에도 생산삭감은 지속되어 OPEC의 증산을 위축시켰다. 98년초 OPEC이 증산을 시작했을 때, 예비 생산능력은 자연적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일시적이었다. 2000년초 OPEC이 증산을 시작한 몇 달 후, 시장에서는 몇몇 OPEC국가의 예비생산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마침내 전체 OPEC국가에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중반에는 지난 20년 아래 처음으로, 시장에서는 OPEC이 현재 증가하는 석유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다. 내가 알기로는 OPEC이 공급을 충당할만한 충분한 탄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불안요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OPEC 예비 생산 능력

(단위:백 만 배럴)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OPEC10	4.2	3.9	3.6	3.2	3.7	4.5	2.2
사우디	2.2	2.1	2.1	2.0	2.1	2.7	1.7

자료 : IEA, 기준 : 각년도별

OPEC10 : OPEC국가 중 이라크 제외

### 3. 단기시장의 형세

2000년 12월 1일 230만 배럴에 달하는 이라크의 수출이 전면중단 되었음에도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 시장에서는 공급부족 가능성에 무시한채 거래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국과 주요 메이저등이 대체 공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IEA의 언급 또한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시장의 향방에 대한 예측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라크의 공급력 손실은 현실이다. 북반구에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보다 난방유의 문제가 더 중요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999	1Q00	2Q00	3Q00	4Q00	2000 <sup>a</sup>	1Q01	2Q01	3Q01	4Q01 <sup>b</sup>
<b>DEMAND</b>										
Total OECD	47.6	47.9	46.3	47.5	49.4	47.8	49.3	47.0	48.3	50.5
Total Non-OECD	27.1	27.4	27.4	28.1	28.3	27.8	25.4	25.6	28.7	29.5
Total	74.7	75.3	73.7	75.6	77.7	75.0	77.7	75.6	77.0	79.7
<b>SUPPLY</b>										
Total OECD	21.4	22.2	21.8	21.7	22.2	22.0	22.4	22.1	22.1	22.6
Total Non-OECD	21.6	21.8	22.0	22.3	22.6	22.4	22.6	22.6	22.7	22.8
Processing Gains <sup>c</sup>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Total Non-OPEC	44.7	45.8	45.4	45.7	46.5	45.9	48.8	46.5	46.5	47.2
<b>OPEC SUPPLY</b>										
Cruude <sup>d</sup>	28.6	26.6	27.8	28.6	28.6	27.9	29.4	28.1	28.1	28.6
NGas <sup>e</sup>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Total OPEC	29.4	29.3	30.7	31.5	31.5	29.8	30.3	29.0	29.0	29.5
Total Supply <sup>f</sup>	74.1	75.1	76.1	77.2	78.1	76.7	80.0	77.0	77.5	79.6
<b>STOCK CHANGE</b>										
Call on OPEC <sup>g</sup>	27.3	26.7	25.3	27.0	28.3	26.9	27.9	26.1	27.5	20.6

<sup>a</sup> net of educational, price, and losses in the refining process  
<sup>b</sup> OPEC 10 crude increased by 26.7 mbd + 20.6 mbd  
<sup>c</sup> comprises crude oil, condensates, NGLs, all from non-conventional sources and other sources of supply  
<sup>d</sup> equals total demand minus NGLs, all from conventional OPEC crude

위표는 IEA의 단기 수급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00.4/4 분기의 수급 밸런스는 OECD의 재고분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꽤 양호하다. OPEC은 이미 내년 봄에 이르러 유가의 하락이나 심지어 폭락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IEA는 내년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 세계 수요가 200만 배럴정도 감소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경험상 OPEC은 그들의 목표 생산량을 감축했을 경우 결속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 생산 문제는 내년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2000년의 경우에 보듯이 휘발유 부족은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특별히 미국과 미약히긴 하나 유럽에까지 문제가 될 것이다. 각 석유회사들은 Driving Season이 끝날때까지 휘발유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

여 금년 아주 늦게서야 난방유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차후의 휘발유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난방유로부터 휘발유로의 생산 전환을 지연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OPEC은 생산량 조절을 통하여 석유시장에 또 다른 변동 요인을 제공할지 모른다. 또한 OECD의 비축분이 적정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한마디로 석유시장 혼란의 또 다른 한해가 될 것이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은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소비국에게는 주요 관심사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 이자, 6위의 소비국이다. IEA는 한국 정부 및 업계와 26번째 IEA 회원국으로 가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의 석유공급 안정성 확보에 공헌하는 것이다. Ⓢ

#### 용어해설



#### • 음성패킷망

기존의 데이터 통신용 패킷망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VoIP사업분야를 우리 나라의 디지털 강국화에 핵심적인 10대 전략 품목 중의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로 전도가 유망하다. 세계적으로 기술 표준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FR, VoATM 등 세 가지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다.

전세계 서비스 시장은 99년 25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880억달러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비 시장은 스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용 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 시장 스프레임 릴레이 및 ATM 액세스장비 시장 등으로 대별돼 99년 16억달러 수준에서 2004년 80억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